

경제 현안간담회

공개

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

2017. 11. 3.

관계부처 합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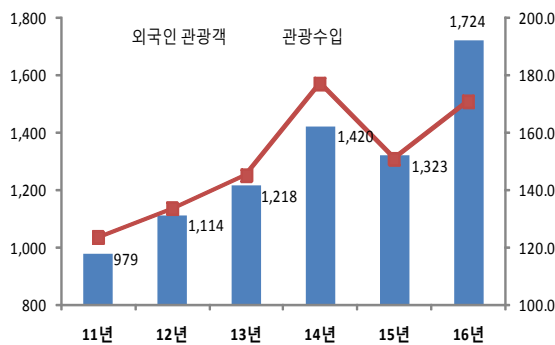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목표 및 추진과제	3
III.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	4
1. 관광시장 균형성장	4
2. 고부가가치 관광 확대	6
3. 평창 동계올림픽 및 개별관광 편의 제고	9
IV. 향후 추진계획	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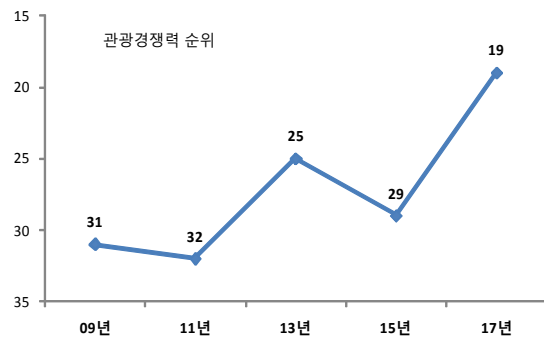
I. 추진배경

- 방한 관광산업은 지난해까지 성장해왔으나, 금년도에 크게 위축
 - 외국인 관광객은 지속 성장하여, 지난해 1,724만명(사상 최고) 기록
 - 우리나라 관광경쟁력 순위는 '17년 19위까지 상승(WEF)

외국인 관광객, 관광수입 추이(만명, 억불)



한국 관광경쟁력 순위(세계경제포럼)



⇒ 한중관계 개선 및 평창 동계올림픽을 침체된 관광시장 회복 계기로 활용하면서, 관광시장 체질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

※ 우리나라 방한 관광산업의 현 주소

① (다변화 미흡)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, 동남아·아랍 등의 관광객 비중은 여전히 낮음

* 외국인 관광객 비중('16년) : (중국) 46.8%, (ASEAN 6개국) 12.2%, (중동) 1.1%

○ 동남아 관광객 등에 대한 비자가 매우 제한적이고, 동남아·아랍 관광객에 대응할 통역안내사는 현저히 부족*

* 등록 관광통역안내사 수('17.4월, 명) : 베트남어 30, 태국어 94, 아랍어 6

⇒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으로 안정적인 시장성장 제약

* 복합리조트·테마파크·면세점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는 대규모 관광시설 투자에 불확실성 확대 등

② (외래객 소비 정체) 저가 단체 관광상품에 비해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이 부족하고,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도 정체*

*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(달러) : ('13) 1,648 → ('14) 1,606 → ('15) 1,713 → ('16) 1,625

○ 크루즈, 의료 등 고급 관광시장은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

⇒ 한국관광 만족도 저하 및 관광객 유치의 경제 기여 제한*

* 관광산업 고용기여율('15년 기준 WTC, %) : 세계평균 9.1, OECD평균 10.4, 한국 5.6

③ (개별관광 미흡) 외국인 관광객의 75%를 차지하는 개별관광객 (FIT : Free Individual Tourist) 대상 관광서비스 등이 부족

○ 개별관광객은 버스·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과 길찾기·쇼핑 등 관광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등에 불편 호소

⇒ 글로벌 관광시장의 개별여행화 추세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장기적인 성장에 한계

II. 목표 및 추진과제

[목표] 방한 관광시장의 성장동력 회복

**추진
모멘텀**

한-중관계 개선,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활용

정책전략

주요과제

① **관광시장
균형성장**

- 일·동남아 등 전략시장 중심 시장다변화
- 중국시장 정상화

② **고부가가치
관광 확대**

- 크루즈관광 기반 조성
- 의료관광 활성화
- MICE·쇼핑관광 확대

③ **평창 동계올림픽
및 개별관광
편의 제고**

- 올림픽 방문객 불편 최소화
- 맞춤형 관광경험 제공
- 관광벤처 육성
-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

Ⅲ.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

1 관광시장 균형성장

◇ 방한 수요가 늘고 있는 전략시장 중심으로 관광시장 다변화

- (동남아* 무비자 입국) 유치여행사를 통해 양양공항에 입국하는 동남아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(~'18.4월 한시)

* 인도네시아, 베트남, 필리핀 등 3개국

-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동남아 관광객의 동계스포츠 관광을 확대하고, 성과를 살피 제도 지속여부 결정

- (복수비자 확대)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를 1회 이상 방문한 경력이 있는 동남아·중국 국민에게 복수사증 발급

- 다만, 치안여건 등을 감안, OECD 국가중 동남아 국민을 주로 근로자로 유입*시키거나 비자발급이 매우 용이한 국가**는 제외

* 체코, 폴란드, 헝가리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에스토니아, 라트비아

** 일본, 칠레, 이스라엘, 터키, 멕시코

- (타깃 맞춤형 콘텐츠 개발) 전략시장 관광객을 국가·세대·지역 등에 따라 세분화하고 선호맞춤형 콘텐츠를 지속 발굴

- (동남아) 시장 성장단계에 따라 K-POP, 한류 드라마 등을 활용한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확대

< 동남아 타깃 한류테마상품 개발(안) >

- K-POP 콘서트 투어 상품 개발, K-POP스타-팬 연계형 관광상품 개발
- 드라마 촬영지를 연계한 '(가칭)드라마 로드' 관광상품 개발
- 한류스타 동반 방한 관광 이벤트

- (일본) 관광객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고부가 테마상품 개발·홍보

* (예) 20~30대 젊은층 대상 뷰티, 패션, 식도락 등 '스몰 럭셔리 31선' 선정, 40~50대 및 가족 대상 세계문화유산·문화예술 연계 상품 개발 등

- (2선 도시) 소득수준이 향상되고있는 전략시장 2선 도시에서 한국관광의 매력·인지도를 높여 관광객 유치 확대

< '18년 2선 도시 한국관광 홍보 계획(안) >

- 여행업계 로드쇼 : (일본) 도쿄 → 오사카후쿠오카, (베트남) 하노이 → 호찌민, (인니) 자카르타 → 수라바야
- 베트남 한국문화관광대전 : '17년 하노이 → '18년 호찌민
- 방한관광 판촉행사 : 대만 남부지역 개최

- (스톱오버 관광 활성화) 72시간 환승관광* 등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제선 환승객이 환승대기중 즐길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 확대

* 환승관광외국인 무비자 입국허가 : 외국인(시리아·수단 등 11개국 국민 제외)의 인천공항 환승관광프로그램 이용시 수도권내 72시간내 무비자 체류 허가

- 공항 인근의 관광지·복합리조트*·쇼핑몰 등 관광·상업시설과 연계하는 환승관광 프로그램 개발·홍보 추진

* 인천공항 반경 10km내 카지노·호텔·문화시설로 구성된 복합리조트 3개소 입지
 ·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('17.4월 1단계 개장, '18.8월 2단계 개장 예정)
 · Inspire-IR ('20년 개장 예정) · RFCZ 복합리조트 ('20년 개장 예정)

- (특수어권 가이드 확대) 수요대비 부족한 특수어권 가이드*를 확충하기 위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완화 추진

* 등록 관광통역안내사 수('17.11월, 명) : 베트남어 30, 태국어 94, 아랍어 6

-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완화 등으로 '18년에는 '17년* 대비 2배 가량 인원이 확충될 전망

< 특수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어학시험 완화 내용 >

- 유학 경험자에 대한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완화 (4년 유학→3년 유학)
- 해외 거주 경험자에 대한 외국어 시험 면제제도 도입 (3년 이상 거주)
- * 국내 거주인에 대해서는 어학시험 합격기준은 既완화 ('17.2월, FLEX 625→600)

◇ 한-중관계 회복에 따른 중국시장의 정상화 촉진

- (방한 소비심리 진작) 한국관광 캠페인, 로드쇼, 팸투어 등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소비심리를 조기 회복
 - (한-중 관광교류 재개) 중국 현지 유력 언론·여행사 사장단을 초청하여 평창 등 신규 관광지 팸투어, 고위급 면담 추진
 - (현지 캠페인) 중국 전역에 평창 동계올림픽 연계 한국관광 캠페인 광고 실시 및 관광 소비자 행사 개최
 - (방한 유통채널 재건) 중국 주요거점(베이징·상하이·광저우)에서 방한 관광 순회 로드쇼·설명회* 개최, 중국여행사 집중 세일즈콜** 추진
 - * 평창올림픽, 프리미엄 관광상품, 한류, 웰니스, 공연 등 방한관광 콘텐츠를 망라한 한국문화관광 종합설명회 개최 (17.12월)
 - ** 중국 최대 관광 박람회 중국국제여유교역회(CITM) 참가(11.17~19일)
- (비자수수료 감면) '17년말 일몰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의 발급수수료 감면(15불 상당)도 '18년까지 1년 연장

2 고부가가치 관광 확대

◇ 노선 확대·출입국 개선 등 크루즈 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

- (크루즈 탑승객 무비자 확대) 법무부 지정 크루즈선을 탑승한 中관광객의 무비자 관광상륙을 허가('18년 한시)
 - * (기존) 중국인 단체관광객 → (변경) 지정크루즈 탑승 중국인 관광객
 - ** 크루즈 기항(해수부) : ('16년) 791항차 195만명 → ('17.10월) 233항차 39만명
- 1차 시범사업('16.10~'17.3월)에 이은 2차 사업('18.1~'18.12월) 결과를 살펴 지정크루즈 무비자 입국의 대상자 확대 여부 검토
-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 및 한·중간 인적교류 촉진 기대

□ (노선확대) '17년 최초로 유치*한 동남아 크루즈 노선을 확대하고 국내외 마케팅 강화

* '대만基隆-일본 나가사키-한국 부산'을 잇는 노선에 4항차 1만명 유치('17.7~9월)

○ 최근 가입한 '아시아크루즈협약체*(10.20일 가입)'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가적인 동남아 노선 개척 추진

* 동남아 크루즈항로 개발 등을 수행하는 아시아권 크루즈 협약체(대만/필리핀/홍콩/중샤먼·해남시)

◇ 우수 의료인력·기술·인프라를 활용한 의료관광 활성화

□ (中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) 중국 현지 한국의료 브랜드 제고 추진

○ (한국의료 거점센터 신설) 중국내 한국의료 인지도 강화, 현지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상해에 '한국의료 거점센터' 신설('18년)

○ (한·중 협력상품 개발) 중국 기업과 한국의료상품 프로모션을 추진*하고 환자송출 기업과 협업 등 유치 채널 확대

* (예) 씨에은행 고객대상 한국의료상품 프로모션 추진,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('17.11월) 계기 MOU 체결 등

□ (웰니스관광) 치료 중심의 의료관광에서 진일보한 건강·휴양·뷰티·스파 등이 결합된 웰니스관광 활성화

○ 국내외 웰니스관광 사례분석을 통해 '웰니스관광 클러스터' 모델 수립하고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·지원('18년(안), 1개 지역, 4억원)

○ 아울러, 업체가 다양한 테마*로 웰니스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내외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

*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우리나라 웰니스관광 테마를 ▲한방, ▲힐링·명상, ▲뷰티·스파, ▲자연·숲 치유 등 4가지로 분류, 25선 선정('17.5월)

○ 해조류, 머드 등 해양자원을 지역별로 특화하고,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해양 웰니스 관광 산업으로 육성* 추진

* 해양치유자원실용화 R&D('17~'19) 진행, 지역별 인프라 구축('20~) 추진

◇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MICE · 쇼핑분야 관광 활성화

- (지역 MICE 육성) 숙박·쇼핑·공연 등 연관 산업 집적화를 위한 국제회의복합지구·집적시설 신규 지정('18.上)
 - 설명회('17.11월) 등을 거쳐 지자체 신청·신규지정*하고 지역의 도시브랜드 마케팅 강화·인프라 확충 등 유도
 - *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·진흥계획 승인(문체부, '18.4월) →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(사·도지사, '18.4~5월) →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(문체부, '18.6월)
 - 지역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등을 촉진하기 위해 권역단위 협업*을 통한 공동유치·마케팅 강화
 - * (예: 남해안권) MICE행사 유치 단계부터, 광주·전남지역 MICE행사 개최 이후 부산·경남으로 사후관광 추진 등 권역단위 공동 마케팅
- (쇼핑관광 활성화) 쇼핑서비스 품질인증을 추진하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상품·쇼핑명소를 선정·육성('18년~)
 - 관광품질인증제를 활용하여 우수 쇼핑판매업소를 인증하고, 자율점검·암행평가* 등으로 인증업소의 고객응대 품질 관리
 - * 평가결과에 따라 쇼핑 상품·서비스 품질 미흡시 인증취소 가능
 - 기존 브로셔 방식의 상품판매형 홍보에서 탈피, 해외 현지의 브랜드 홍보를 통해 한국쇼핑 전반의 인식도·가치 제고
 - 남해안권에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 5개, 쇼핑명소 2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쏠단계를 집중 지원
- (프리미엄 관광 확대) 미식·호텔·레저 등 관광분야별 국내외 선도기업간 교류 촉진으로 고급 관광프로그램 창출 촉진
 - 국내외 럭셔리 박람회* 개최·참가지원을 통해 럭셔리 관광업체간 네트워킹 강화
 - * 한국 프리미엄 관광교역전, 국제 럭셔리 여행박람회 등
 - 최근 문체부-관광공사-럭셔리관광업계가 발족한 '프리미엄 관광 협의체('17.7월 발족)'를 중심으로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·확산

◇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기간중 관광객 불편 최소화

- (숙박) 크루즈 활용, 기존 시설 개량 등을 통해 숙박시설 확충
 - (정박 크루즈 활용) 속초항에 대형 크루즈(2척, 2,261실)를 정박시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크루즈 객실을 숙박시설로 운영 추진
 - 선사측 현지실사, 크루즈 운영 관련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선사와 계약체결·운영 예정
 - (기존 시설 개선) 관광기금 등을 활용하여 노후 숙박시설 개·보수, 안내시설 설치 등 시설 개량 지원
 - * 숙박시설 신축·개보수를 위한 관광기금 저리 융자(300억원), 숙박업소 관광 안내시설 설치 지원(~11월, 1,400개소, 28억원)
- (교통) 대회개최지로의 광역 접근성을 개선하고, 인접지역 교통연계를 늘려 권역내 이동성 제고
 - 평창·강릉 등 올림픽 개최도시와 속초·동해·원주 등 숙박 배후 도시간 무료 셔틀버스 편성·운영(권역별 20~60분 간격)
 - 주요 권역별 시외버스 증회·변경 운영*으로 광역노선 수요에 대응
 - * 서울 21회, 인천·경기 128회, 충청 20회, 경상 13회, 전라 4회 등 매일 186회 운행
 - 개최도시내 차량2부제 실시 및 시내버스 무료운행 추진
- (해외 올림픽 붐 조성) 동계올림픽에 관심도가 높은 구미주와 겨울관광 수요가 많은 일본·동남아 등 전략시장에 집중 홍보
 - * (예) 구미주 유수 콘서트홀*에서 '평창 겨울음악제'를 순회공연(~12월)
 - ATR(공식티켓판매사)의 판촉활동 지원, 해외 로드쇼 개최* 및 주요 해외 매체(CNN, 유로스포츠 등)에 올림픽 광고 집중 송출
 - * 북미·유럽('17.4월), 후쿠오카 설명회('17.12월 예정) 등

□ (관광패스 판매) 올림픽 기간중 외국인 관광객이 평창·강릉 일원의 관광상품·철도 이용에 할인 받을 수 있는 관광패스 판매

* (코리아투어카드 2018 에디션) 전국 교통카드, 서울·경기·강원지역 쇼핑·관광지·문화 할인 (평창 코레일 패스, '18.2.1~3.25) 열차 무제한 이용(5·7일권/경강선 포함) (디스커버 서울패스 평창에디션) 서울관광패스에 평창 일원의 관광지 할인혜택을 추가

□ (숙박요금 안정화) 대회기간중 '바가지 요금'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숙박업소 가격안정반을 개최지에 중점 운영

○ 동시에, 대회기간 임시 공급 가능한 주택확보*에 주력

* (예) 조직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대회운영인력 숙소 활용 등 방안 마련
(활용가능 공동주택 조사결과 : 강릉 1,273실, 평창 397실 등 총 1,670세대)

◇ ICT 활용도를 높여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경험 제공

□ (스마트 관광) 개별관광객이 이동동선에 따라 관광정보·길안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 관광 시스템 구축

< (사례) 강릉 월화거리 IoT 서비스 >

-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강릉시 폐선부지를 스마트 관광이 가능한 첨단거리·공원으로 시범 조성('17.12월준공)
- 관광객 위치에 기반하여 상권정보·쿠폰제공, 원격셀카, 증강현실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관광정보·콘텐츠를 모바일로 실시간 안내

○ 강원도 등 전국 관광지 무료 Wifi* 설치('17, 3.8억원→'18(안), 14억원) 및 융복합 관광 R&D 확대('17, 11억원→'18(안), 22억원)

*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강원도 관광지 내 무료 와이파이 458개소 설치('15~'17년)

□ (관광 빅데이터 활용) 관광객의 데이터를 수집·분석하는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정보공유로 다양한 민간 서비스 창출

○ 시범적으로 관광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개별관광객 대상 관광 코스 개발·홍보 추진(60개 코스)

◇ 관광벤처 육성으로 개별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 대응

- (최소자본금 완화) 현재 한시적으로 50%감면하고 있는 여행업 최소자본금 요건(2→1억원, '16.7월~'18.6월)을 상시 규정화 추진
 - 소규모 관광객 여행가이드 등 신규 관광벤처의 창업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진입 촉진
- (교통 O2O) 소규모 외국인 관광 편의제고를 위해 외국인 그룹과 차량·기사를 온라인플랫폼에서 중개하는 O2O벤처 육성
 - 평창 동계올림픽 관광객 대상 '수도권-개최지-인근 관광지'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O2O 전용정류장 설치 등 대책 마련('17.12월)
- (新관광서비스) 他산업과의 융합, ICT접목 등을 통해 新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

< (사례) 新관광상품·서비스 >

- 출·입국 당일 '빈손관광'을 활성화하는 공항-호텔 간 수하물 배송 서비스
- 바가지요금 사전차단을 위해 공항-목적지간 요금을 선납하는 '선불택시(Pre-paid Taxi)'

- 우수 서비스 제공기업을 중심으로 新상품·서비스 구현에 애로 사항 발굴 및 지원방안 강구
 - * (예)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·컨설팅, 홍보·판로개척, 입주공간 지원 및 업계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

◇ 버스·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향상

- (광역버스 연계 강화) 고속도로 휴게소·간이정류소 등에 고속·시외버스, 시내버스, 지하철 등 교통수단간 환승시설 확대
 - * 고속버스 환승정류장 4개소(선산·정안·횡성·인삼랜드), ex-HUB 3개소(옥천·가천대·동천) 운영중
- 12월부터 섬진강 휴게소내 영·호남 환승센터를 신규 운영하고 북수원·판교 등 간선교통망 결절지에 환승시설 확대

- (광역관광순환버스 확대) 면허신청 노선에 2개 이상 광역지자체가 관련된 경우 국토부 노선조정위원회가 관계자 협의를 적극 조정
 - 여러 시도를 통과하는 광역관광순환버스 면허발급 과정의 불편·지연* 해소 기대
 - * 노선이 통과하는 모든 시도와 협의를 필요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§5)하여 일부 구간 미협의를 노선 개설 불가
- (택시 정액요금) 택시이용시 부당요금 수취 근절을 위해 특정 구간에 정액요금을 적용하는 구간요금제 도입 추진('18년)
 - 택시요금 조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·홍보하여 각 지자체의 요금체계 조정 유도

IV. 향후 추진계획

- 상기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방한 관광시장에서 연내 가시적인 개선 효과 창출
-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과제와 중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신설되는 '국가관광전략회의'에 상정·논의 추진